“덤으로 사는 삶,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데 힘써야죠”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1. 생명나눔 운동하는 일면 대종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간 기증 받고 새생명 얻은 기억에
“새 생명 얻은 은덕 갚겠다” 서원
2005년 생명나눔 이사장 취임하며
희망 품은 환자들에게 자비 실천

30주년 앞두고 ‘건강한 사회’ 승화
근본적 생명존중운동 역사 펼칠 것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나눔 사회 실현될 때 불국 길 열려



일면 스님은… 1959년 명허 스님을 은사로 해인사에서 출가했다. 1964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9년 동국대 불교대학 승학과를 졸업했다. 조계종 제 9 · 10 · 11 · 12 · 13대 중앙종회의원과 제3대 교육원장을 지냈다.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대 군종특별교구장, 호계원장, 제38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등 종단 내외 요직을 두루거쳤다. 다양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3년 만해대상을 수상했고 2018년 종단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1년에는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제 나이 이제 마흔 다섯이죠. 23년 전 당시 스물두살 젊은이의 간을 이식받아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누군가 세납을 물으면 늘 이렇게 대답한다. 일면 스님은 1982년 간경화 판정을 받은 뒤 20년 가까운 투병생활을 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이젠 한 주도 못 넘긴다”는 진단을 받았던 때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모든 것을 정리했다. 주위에서 다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기적처럼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났다. 일면 스님은 지금도 수술을 한 날의 분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2000년 1월 8일 오전 10시 5분.

“불제자로 인과(因果)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 염라대왕이 물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왔다 대답하려고 기억하고 있죠.”

경주에서 태어난 일면 스님은 1959년 합천 해인사에서 명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출가 그 해 9월, 태풍이 한반도를 할퀴었다. 3400여 명이 죽거나 다쳤다. 특히 경상도 지역 피해가 컸다. 당시 태풍은 지금까지도 기상청 관측 이후 최악의 태풍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스님은 태풍으로 집이 엉망이 된 난리통에서도 한 스님이 걸망을 지고 탁발하는 뒷모습을 보고 가슴 찡함을 느꼈다. 그 길로 스님을 따라 집을 나섰다. 13세 때의 일이다.

일면 스님은 해인사에서 인생 스승을 만났다. 명허 스님이다.

명허 스님은 엄하디 엄한 수행승이었다. 절 살림살이도 단호했는데, 단돈 1원도 허투루 쓰는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하루는 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장에 갔죠. 어린 마음에 100원짜리 눈깔사탕이 그렇게 먹고 싶었지요. 장 본 내역을 살핀 명허 스님은 사탕 사 먹은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시주받은 은혜로 사탕 사 먹은 놈은 중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두 시간 엎드려 참회를 구하고 부처님 전에 삼천 배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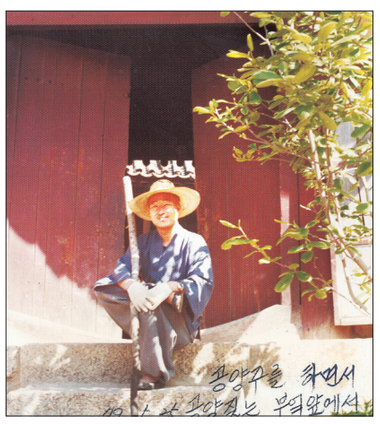
시주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은사스님의 태도는 그대로 일면 스님에게도 이어졌다. 시주의 은혜를 갚기 위해 강원과 동국대 졸업 후 해인사로 돌아가 공양주를 자청해 생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패기와 의욕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탓일까? 일본 유학을 준비하며 학업과 사찰 소임을 이어가던 1982년, 처음으로 간에 이상이 나타났다. 간경화 1기 판정을 받았다. 젊어서 문제없다 생각했고 바쁜 생활 속 제대로 건강을 챙기지 못했다. 그 사이 10여 년이 훌쩍 흘렀고 병환은 점점 깊어갔다.

1998~1999년에는 입원과 퇴원을 16회나 반복했다. 복수가 차고 혼수상태를 반복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약이라도 구해 먹고 싶을 정도의 고통 속에 몸은 점점 깡그리 말라가고 얼굴도 검게 변했다.

“부처님 전에서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부처님 시봉 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살 수 없으면 스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요.”

담담히 주변을 정리하던 어느 날, 극적으로 한 청년과 인연이 닿았다. 스물두 살의 뇌사자라고 했다. 앞서 새 생명을 기다리던 네 명의 환자에게서 맞지 않던 간이 스님에게 꼭 맞았다. 상반신 전체를 가로지르는 십자 모양의 수술 자국을 남긴 채 22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간을 이식받았다. 3일간의 혼수상태 끝에 깨어난 스님은 새로 태어났다. 수술 이후, 쇠진한 기력에도 생명을 주고 떠난 청년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온몸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재활에 힘썼다.



1979년 동국대 졸업 후 해인사로 돌아와 공양주를 살고 있을 때 모습.



1999년 조계종 교육원장 재임 당시 방문한 금강산 신계사에서. 간경화 악화로 몸은 깡그리 말라갔지만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2000년 간이식 수술을 마친 후. 쇠진한 기력에도 생명을 주고 떠난 청년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 재활에 힘썼다.

그리고 5년 후, 스님은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장기기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과 기증을 독려하는 공익법인. 이식수술로 새 생명을 얻은 일면 스님이기에 더한 적임자는 없었다.

일면 스님은 이사장을 맡으며 ‘이생의 인연이 다하는 날까지 새 생명을 다시 얻은 은덕을 갚겠다’ 는 서원을 세웠다. 장기기증은 장기 부전의 고통 속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자비의 실천이기에, 새 생명을 얻은 스님으로서 단 한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간다.

스님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린 덕분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의 규모는 매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처음 이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2000명이던 회원은 현재 15만여 명으로 늘었다.

일면 스님은 “조혈모세포와 뇌사시 장기기증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일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자손을 위하는 길”임을 끈질기게 설득하며 회원을 늘려갔다. 지금은 조계종 스님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등록했고 배우 김혜옥과 김용림, 송선미, 방송인 김병조, 국악신동 송소희 등 연예계 스타들도 홍보대사로 동참할 정도로 지명도가 높아졌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신체발부 수지부모(身體髮膚 受之父母)’ 라는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불교계 내의 유교적 인식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 세수 77세를 맞은 스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지역과 종교에 관계없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 ‘장기기증 운동 포교사’로 활동한다.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불우이웃 돕기 등 1년 내내 빼곡한 생명나눔의 현장을 직접 챙긴다. 손에는 항상 각종 스케줄이 적힌 수첩이 들려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성장할수 있었던 이유다.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한다.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이식이 부족한 시기에 불교계의 척박한 토양에 생명공양과 나눔이라는 종자를 뿌려 온 지 어느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일면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명나눔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난이라는 고통으로 세상에서 숨 쉬고 사는 것 조차 힘겨운 이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30주년을 맞아 이제 생명나눔운동은 근본적인 생명존중운동과 건강한 사회운동으로 그 역사를 승화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뿐 아니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생명공양이라는 일면 스님. 스님은 “나눔이 사회에 실현될 때 사람들 마음과 영혼에 평화가 깃들어 이 땅에 불국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제14회 *
생명나눔 걷기명상

* | 일시 | 2023. 5. 13.(토) 오전 10시부터 접수 *
| 장소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황일면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회장 정현숙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참가 대상
걸을 수 있는 분 모두

참가 혜택
참가자 전원 경품권, 기념품, 간식 증정
참여 시, 자원봉사시간 2시간 부여

참가 방법
단체_www.lisa.or.kr 접속 후 사전 접수
개인_현장 접수

준비 물품
편한 옷차림, 운동화

경품
노트북, LG코드제로,
애플워치SE, 자전거 등

오시는 길
3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02-720-7720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 장 박종우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고 문 김남명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